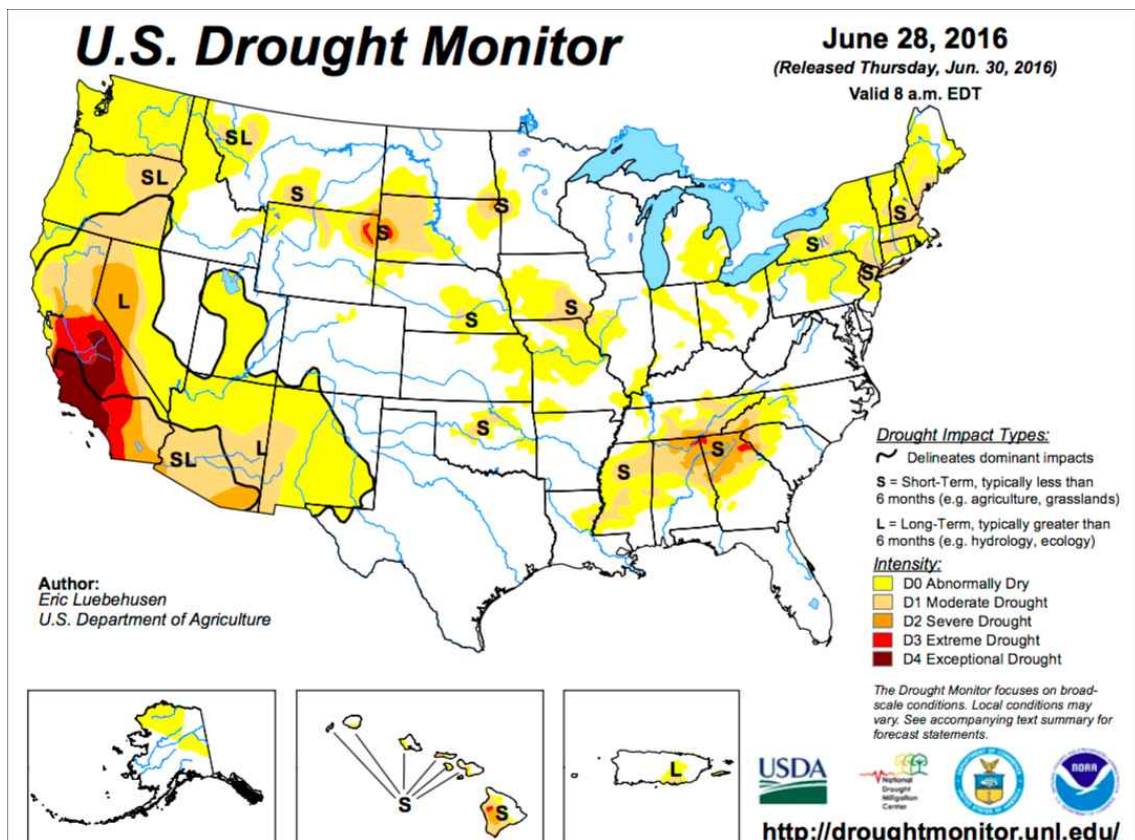


7월 6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3, No. 27)

□ 미국 기후 현황(6/26~7/2)

중서부에는 서늘한 날씨가 찾아온 가운데 옥수수 재배지 남서부 일대에서는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렸다. 미주리와 주변 지역의 지난 한 주간 강우량은 2~4인치를 기록했다. 중부 평원지역에도 비가 내렸고, 이번 비로 겨울밀의 수확작업이 다소 지연되었다. 옥수수 재배지 북부 일대에서는 맑은 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서늘한 기온을 유지했다. 북부 평원 지역과 서부에서는 평년에 비해서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 캘리포니아와 북서부 내륙지역에서는 평년에 비해 기온이 10°F 이상 높았고, 중서부에서는 평년에 비해 기온이 5°F 정도 낮았다. 북서부의 고온현상으로 겨울 밀은 수확을 한층 더 앞당길 수 있었고, 중서부에서는 서늘한 날씨 덕분에 여름작물의 생육상황은 좋은 편이다. 그 외 플로리다 등 미 대륙 모서리에 위치한 지역에서는 계절적인 영향으로 비가 내렸다. 대서양 연안 북부 지역과 남동부 내륙의 분지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았다.



□ 농업 현황 요약(6/27~7/3)

중서부에서부터 대서양 연안 중부지역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낮았다. 옥수수 재배지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6°F 이상 낮았다.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오리건, 캘리포니아, 아이다호, 워싱턴 등에서는 맑은 가운데 기온이 평년에 비해 8°F 이상 높은 더운 날씨를 보였다. 대평원과 미시시피강 중류 등 캔사스와 미주리, 네브라스카 일부 지역에서는 지난 한 주간 강우량이 4.5인치를 기록했다.

■ 옥수수

Silking 단계가 끝난 지역은 15%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5%p 앞선 상황이고, 5개년 평균에 비해서도 2%p 앞서는 수준이다. 오하이오, 테네시, 미주리, 켄터키 등에서는 지난 한 주간 silking 단계에 접어든 재배지의 비율이 25%p 증가했다. 응답자의 75%가 생육 상황이 좋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주와 비슷한 수준이고,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는 6%p 높은 수치이다.

■ 대두

전국적으로 22%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개화기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p 앞서고, 5개년 평균에 비해서도 6%p 앞선 수치이다. 18개 주 가운데 12개의 주에서 지난 한 주간 개화기에 도달한 재배면적이 10%p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0%가 대체로 생육상황이 좋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지난주에 비해 2%p 낮은 수치이고,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는 7%p 높은 수치이다.

■ 겨울밀

7월 2일 기준 수확률은 58%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작년 동기에 비해서는 8%p 앞서고, 직전 5년 평균보다도 3%p 앞선 수치이다. 캔사스에서는 비로 인해 지난 한주 가운데 일할 수 있는 날수가 4.3일에 불과했음에도 지난 한 주간 수확률이 21%p 증가했으며, 수확률은 79%를 기록했다. 재배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62%가 생육상황이 매우 좋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지난주와 같은 수치이지만, 지난해에 비해서는 22%p 높은 수치이다.

■ 면화

7월 3일 기준 42%가 squaring 단계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p 늦고, 직전 5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에도 5%p 뒤쳐진 수준이다. 15개 주 가운데 12개 주에서 지난 한 주간 10%p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면화송이가 형성된 비율은 11%이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p 앞서고 직전 5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는 비슷한 수준이다. 전반적으로 56%의 응답자가 생육상황이 좋다고 응답했고, 이는 지난주와 같은 수치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는 약간 낮은 수준이다.



■ 쌀

7월 2일 기준 응답자의 20%가 발아단계를 마쳤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3%p 낮은 수준이고, 직전 5년 평균에 비해서는 5%p 앞선 수치이다. 성장이 비교적 낮은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의 경우 직전 5년 평균에 비해 빠른 성장속도를 보이고 있다. 전체 응답자의 69%가 생육상황이 좋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지난주와 비슷한 수치이고,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는 비슷한 수준이다.

□ 세계 기후 현황(6/26~7/2)

■ 유럽: 대체적으로 맑은 날씨를 보인 가운데, 북부와 동부에서는 소나기가 내리기도 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한 주간 내리던 비가 그치고 맑은 날씨를 보였는데, 이 덕분에 수확작업이 한층 속도를 낼 수 있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 중부 및 남부에서도 맑은 날씨 덕분에 겨울밀과 보리의 수확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와 대조적으로 영국과 폴란드, 발칸반도에 위치한 국가들에서는 10~5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이번 비로 다뉴브 강 일대의 가뭄은 해소가 되었다.

■ 구소련(서부): 러시아 남부에서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렸다. 이들 지역에서는 주 초반 기온이 35°C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씨를 보였고, 옥수수, 해바라기의 성장도 빠르게 진행되었지만, 주 후반으로 가면서 비가 내리면서 더위를 식혀주었다. 몰도바와 우크라이나 등 해바라기, 대두, 옥수수 재배지역에서도 5~8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우크라이나 북부와 중부에서는 일시적으로 가뭄 현상이 관측되었다. 남부 일부와 중부 지역에서는 겨울밀 수확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 동아시아: 중국 중부에서는 10~25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북동부 일대에서는 적정한 강우량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기온도 작물 성장에 좋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북부 평원지역에서도 비가 내린 가운데 겨울밀 수확작업이 다소 지연되었다. Henana, Shanxi 등에서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밀의 수확작업이 종료되었다. 양쯔강 동부의 Hubei Anhui 등에서는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면서 저수지의 저수량이 높아졌다. 이번 비는 옥수수, 대두, 면화 등의 생육상황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지만, 벼 재배지역에서는 농지를 충분히 잠기게 해 주었다. 남부에서는 25~5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한반도 일대에서도 10~5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 호주: 퀸즐랜드 남부와 뉴 사우스 웨일즈 북부에서는 지난주 내리던 비가 그치고 맑은 날씨가 이어졌다. 맑은 날씨 덕분에 겨울작물의 생육상황은 좋은 편이다. 서호주와 남동부 등에서는 5~25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지난 5월부터 이들 지역은 평년에 비해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있다. 남부와 서부 일대에서는 평년 수준의 기온을 기록하고 있고, 동부에서는 평년에 비해 기온이 1~2°C 정도 낮았다.

■ 아르헨티나: 중부에서는 많은 비가 내렸다. Cordoba 북부, Buenos Aires 동부에서는 25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동부 Cordoba와 Santa Fe에서는 5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10mm 미만의 강우량을 기록했다. Cordoba 동부에서부터 우루과이 북부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50~100mm 내외의 비가 내려 면화 등의 수확작업이 중단되었다. 동부 농경지역에서는 지난 한 주간 기온이 평년 수준을 유지했고, 서부에서는 평년에 비해 낮은 기온을 보였다. Tucuman 등에서는 밤사이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기도 했다. 아르헨티나 농림부에 따르면 6월 30일 기준 옥수수의 수확률은 51%였으며,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의 66%에 비해 낮은 수치이다.

■ 브라질: 따뜻하고 맑은 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이모작 옥수수와 면화의 성장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Rio Grande do Sul 북부에서부터 Mato Grosso 등 중서부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비가 전혀 내리지 않았고, 북동부 내륙지역에서도 비가 내리지 않았다. 이들 지역에서는 지난 한 주간 평균기온이 평년에 비해 3°C 정도 높았고, 낮 최고기온은 30°C 중반까지 올랐다.